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군 복무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원 예 은

군 복무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이정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원 예 은

인 준 서

원예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군 복무 병사의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의 육군부대 병사 4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동료집단 응집력,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군 생활 적응,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매개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10
1. 군 생활 적응	10
2. 정서지능	12
1) 정서지능의 개념	12
2)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14
3. 자기효능감	16
1) 자기효능감의 개념	16
2)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17
3)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18
4. 집단응집력	20
1) 집단응집력의 개념	20
2)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의 관계	22
3)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23
5.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관계	24
III. 연구문제	26
1. 연구문제 및 가설	26

IV. 연구방법	28
1. 연구대상 및 절차	28
2. 측정도구	29
1) 정서지능 척도	29
2) 자기효능감 척도	30
3) 집단응집력 척도	31
4) 군 생활 적응 척도	31
3. 자료 분석	33
V. 연구결과	34
1.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	34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38
3. 매개효과 검증	41
VI. 논의	46
1. 결과에 대한 논의	46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50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정서지능 척도의 문항구성	30
<표 2>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31
<표 3> 군 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32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	37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간 변인의 기술통계	40
<표 7>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43
<표 8> 매개효과 Bootstrap 분석 결과	45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1
<그림 2>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 의 매개모형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의무병 제도로, 헌법(제37조)과 병역법(제3조)에 의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인남자라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해 평균 약 30만 명의 장병이 군에 입대하여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지니게 된다(구승신, 2013).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는 달리 환경적으로 특수한 성질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군 조직은 통제된 계급사회로서 다른 조직에 비해 매우 강제적이고 폐쇄적이며, 병사들에게 공동체의 유대를 위한 집단주의를 강요한다. 이는 상하 계급 간의 갈등, 업무에 따른 갈등, 단체생활과 억압된 자유에서 오는 갈등 등의 여러 형태의 갈등을 유발한다(정원철, 박영주, 2011). 더욱이 현재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풍요로운 사회경제적 여건과 핵가족화로 인해 질적으로 향상된 개인의 삶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성과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군 조직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특징과 상충되는 가치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구승신, 2004).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발달상으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시기로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이며(Crain, 2015), 타인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다(Miller, 2002). 이와 같은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것은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환경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그 강제성에 의해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욕구들이 상충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을 야기시킨다(김옥란, 김완일, 2014).

실제로 병사들은 군이라는 계급사회, 외부와의 단절된 환경, 이질적인 군대 문화와 잘 맞지 않아 복무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은 입대 후 가족과의 분리, 급격한 생활의 변화, 강한 통제와 규율에 대한 복종, 책임수행의 의무 등으로 지속적인 긴장감을 경험한다(최혜란, 박숙희, 2009). 또한 최근 군에서는 병사들의 자살, 성범죄, 언어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왕따, 탈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대 내 주요 문제들은 대부분 병사들이 군이라는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 동안에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구승신, 2013). 이러한 부적응 문제가 근무지 이탈이나 자살 혹은 타살 등의 사고로 이어지면서, 개인이나 군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주희, 김정규, 2015). 따라서 군 복무 병사들에게 군 생활 적응은 병사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개개인의 적응 여부가 군의 전투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군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범주화하면 크게 가정환경 요인, 부대환경 요인, 개인내적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 대상관계(권소영, 김완일, 2013), 가족기능(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부모 애착(김옥란, 김완일, 임재웅, 2016), 부모양육태도(정봉기, 김완일, 2016), 가족건강성(강부자, 최연실, 2017) 등이 연구되었다. 다음으로 부대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상관의 공감능력과 친밀도(최명선, 구남웅, 2008), 조직 헌신(조추용, 2015), 군 생활 스트레스(이대식, 서혜석, 변상해, 2016), 직속상관의 유머감각(구남웅, 최태산, 2009)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권소영, 김완일, 2015), 내현적 자기애(김유덕, 김완일, 2013), 자기복잡성(김옥란, 김완일, 2015), 긍정적 사고(박

미영, 김완일, 2014), 자기분화(김해성, 김완일, 2016) 등이 연구된 바 있다.

그러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가정환경 요인은 군에서 상당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옥란과 김완일(2014)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연구에서 가족요인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대환경 요인 역시 부대시설 및 상사와 동료와 같은 집단구성원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다(김옥란, 김완일, 2015). 하지만 이에 비해 병사들의 개인내적 특성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김윤근, 2007; 엄덕희, 2012; 최혜란, 박숙희, 2009),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개입이 쉽고 변화가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병사들의 개인적 특성이 군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개인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군대 내 환경적 요인이라기보다 집단 괴롭힘과 폭행 등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와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근, 2007; 육군본부, 2007). 실제로 병사들은 군대 내 선후임 및 간부와 대인관계 문제를 군 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지각하고 있었으며(류진아, 2018)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군 생활 적응에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근, 2007; 최혜란, 박숙희,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서지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며, 나아가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Mayer & Salover, 1990).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할 줄 알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5). 인간의 정서는 대인관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Parkinson et al., 2005), 이때 정서지능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대인관계와 적응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심혜숙, 왕정희, 2001; Goleman, 1995).

선행 연구들에서 정서지능은 인간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Garner & Estep, 2001; 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과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며, 타인의 평판이 좋고, 학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ts & Rotenber, 2007).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병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박인조, 양병화, 김성원, 공윤영, 2015; 이현주, 김완일, 2015). 따라서 병사들의 정서지능을 알아보는 것은 군대 내의 여러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정서지능이 긍정적인 행동과 적응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을 바탕으로 산업분야(강영순, 임화순, 2008; 문용린, 임태조, 곽윤정, 이현웅, 2007; 이지우, 장영혜, 강인호, 2016)와 스포츠 분야(유진, 2013; 장지훈, 김원경, 서재복, 최만식, 2014; 최만식, 유정인, 2011)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 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도 정서지능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박인조, 양병화, 김성원, 공윤영, 2015; 이현주, 김완일, 2015),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는 권소영, 김완일, 김호준(2017)의 연구뿐이었다. 정서지능이 높은 병사는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고, 정서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군대 내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이외에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가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와 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Bandura, 1986).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Bandura, 1997). 또한 낮은 상황 혹은 불쾌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더 잘 다루기 때문에(Bandura, 1986), 군이라는 낮은 환경에서 새롭게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나가야만 하는 병사들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Judge & Bono, 2001; Komarraju & Nadler, 2013; Lunenburg, 201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 혹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상황에 대한 적응을 잘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보다 잘 수행한다고 한다. 자기효능감과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두 변인 간에는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재환, 김경희, 2013; 정윤정, 임선아, 2013).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근, 2007; 서혜석, 2008).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군에 입대한 병사들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며 집단의 가치에 대해 교육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군 조직에서 ‘집단’에 대한 가치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권소영, 김완일, 2015). 하지만 집단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장병들의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군 조직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 집단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최혜란, 박숙희, 2009) 정서지능이나 자기효능감 같은 병사들의 개인내적인 변인과 더불어 집단에 대한 변인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관련 변인 중 하나로 집단응집력을 가정하고자 하였다. 집단응집력이란 ‘구성원들이 집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는 힘’으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집단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사기를 의미한다(Kozub & McDonnell, 2000).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구성원들과 사회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집단에 계속 남으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Casey-Campbell & Martens, 2009). 집단응집력이 높다는 것은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워크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iebold, 2007).

기존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집단 관련 개념으로는 집단효능감이 있다(권소영, 김완일, 2015; 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집단효능감이 집단의 ‘성취능력’에 대한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Bandura, 1997), 집단응집력은 ‘집단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마음’ 또는 집단 구성원과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구희곤, 임수원, 2011; Casey-Campbell & Martens, 2009). 즉, 집단응집력은 집단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집단 특

성 변인보다 비교적 개입이 쉽고, 병사들의 애대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급 응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13; 임수연, 권동택, 2012). 구승신(2004)의 연구에서는 군 복무 병사들의 성장이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생활환경을 병사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서적 환경’ 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정서적 환경에는 군 조직의 응집적이고 신뢰적인 분위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민화(1998)는 군 생활 적응력 향상요인에 조직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집단응집력은 집단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변인으로서 집단구성원의 만족 및 수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Griffith, 2002; Salo & Siebold, 2008), 특히 군대에서의 수행 및 전투유효성, 심리적 웰빙 등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hronson & Cameron, 2007; Griffith, 2002; Griffith & Vaitkus, 1999). 이러한 집단응집력을 통한 병사들의 수행이나 심리적 안정감은 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윤근, 2007; 엄덕희, 2012), 집단응집력은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 및 집단응집력과 각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낙관적인 신념 체계와 건설적인 사고유형을 지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긍정적이고(Salovey et al., 2001) 스스로를 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1). 이와 같이 높은 정서지능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기효능감의 발

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Chan(2004)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Moafian과 Ghanizadeh(2009)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자기정서 인식, 대인관계 능력 등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의 관계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마음읽기 능력인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활용과 조절 능력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기 때문에(Mayer & Salovey, 1995) 자신이 속한 집단 내 구성원들과 더욱 잘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야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은 직장 내 집단의 응집력, 직업만족도, 직무수행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Rozell & Scroggins, 2010). 또한 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최만식과 유정인(2011)의 연구에서도 선수들의 정서조절 능력은 팀 내 상호작용을 촉진해 응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의 팀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여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병사의 경우 부대 내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경험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이 생기도록 할 수 있고, 동료 부대원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높여 군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정서지능이나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및 군 생활 적응의 개별적인 관계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군 생활 적응에 관

한 연구는 주로 병사들의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권소영, 김완일, 2015), 군대는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조직특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집단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병사들의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개인내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집단적 특성인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기제를 밝힘으로써,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군 생활 적응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요구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Piaget, 2005). Rathus와 Nevid(1995)는 인간은 환경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단순한 조화의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군대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연구에 의해 군 생활 적응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초기 연구를 살펴보면, Stauffer 등(1949)은 군 생활 적응을 ‘개개인이 군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군에서 부여한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며,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신태수(1981)는 군 생활 적응을 ‘심신의 안정, 임무수행에 대한 의지, 직책과 직무에 대한 만족, 군 조직에 대한 태도’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군 생활 적응에 대해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구승신(2004)은 병사들이 군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회화’와 병사들 스스로 군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역할 개인화’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였다. Peterson 등(2011)은 군 생활 적응을 ‘정서적, 사회적, 가족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잘 적응된 상태’로 정의

하였으며, 박일과 고영진(2012)은 ‘개인이 군 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군조직과 자기 임무에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는 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군 생활 적응은 ‘군 조직 내에서 부여된 자신의 임무에 사명감을 가지며, 군 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스러운 태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군 생활 적응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군 생활 적응의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윤희(1963)는 군 생활 적응의 구성개념을 신체, 심리, 가정환경, 부대환경, 이성관계, 동료 및 상하관계 등의 여섯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박현철(2001)은 군 생활 적응의 구성개념을 군 내부의 요인(직무, 역할, 구성원의 지지 등)과 군 외부의 요인(가족, 친구, 이성 등)으로 나누었다. 오현철(2012)은 선행연구(Stauffer et al., 1949; 이윤희, 1963; 신태수, 1981)들에서의 구성개념인 ‘심신의 건강’, ‘임무수행 의지’, ‘직책·직무만족’,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등에 ‘군 생활 가치’를 추가하여 군 생활 적응을 모두 다섯가지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군 생활 적응의 구성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구성개념의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군 실정에 잘 부합하지 않거나, 군 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인 개인내적 측면과 개인외적 측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옥란과 김완일(2014)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청년후기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다양한 대인관계 차원과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 생활 적응의 구성개념을 개인외적 측면(동료관계, 선임관계, 이성관계)과 개인내적 측면(군 생활 가치, 업무능력, 심신건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옥란과 김완일(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소를 6가지 영역(동료관계, 선임관계, 이성관계, 군 생활 가치, 업무능력, 심신건강)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태도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군 생활 적응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2.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개념

정서지능은 Mayer와 Salovey(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점검하고 그 감정들을 구별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Mayer와 Salovey(1990)는 초기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로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정서에 대한 사고 측면을 보충하여 기존의 구성 요소를 정교화하고 세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Mayer와 Salovey(1995)는 기존의 정서지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정서를 통해 융통성 있는 행동계획을 세우고 스스로를 동기화하는 ‘정서 지식의 활용’,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정서의 반영적 조절’의 4가지 요소로 정서지능을 정의하였다.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 유능성, 조망수용, 대인관계 지능, 사회지능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란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적응능력이자 사회적 대상과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으로서(Trentacosta & Fine, 2010), 타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유능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인지능력,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기술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다면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서지능과는 차이가 있다(김영옥, 2002; Merrell, 1999; Raver & Zigler, 1997).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은

타인의 마음, 생각, 느낌, 행동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송명자, 1995; Piaget, 2005). 조망수용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감정 조망수용은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는 점에서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이현숙, 2006; 정덕희, 2009),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조망수용은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 지식 등과 같이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지능과는 구분된다.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Gardner(1983)가 제시한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의 하위요소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표정, 목소리, 몸짓 등에 나타나는 감정이나 동기 등을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dner, 1983; 문용린, 2001에서 재인용). 또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과 의도를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뜻한다(이주리 2002; 지성호, 공란란, 강영순, 2016).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이주리, 2002) 정서지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기술이 정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서지능과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은 사회성과 밀접한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혹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Emmerling & Boyatzis, 2012; Moon, 2010). 사회지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서지능의 상위개념으로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지능을 설명하고 있다(Crowne, 2013; Moon, 2010). 즉, 사회지능은 넓은 의미에서 정서지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알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서지능을 개인내적 변인 중 하나로 가정하였다.

한편, Goleman(1995)은 Mayer와 Salovey(1990, 1995)가 제안한 정서지능을 EQ(Emotional Quotient)로 명명하면서 정서지능의 개념을 대중화시켰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좌절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고 충동 억제 가능하게 하며, 기분의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한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지 않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에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기 동기화(self-motivating), 감정이입(empathy), 대인관계기술(social skill)의 5가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에 Wong과 Law(2002)는 Mayor와 Salovey (1995), Goleman(1995)의 연구를 기초로 정서지능의 4가지 차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기정서 인식(SEA, self-emotional appraisal)’,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타인정서 인식(OEA, other’s emotional appraisal)’,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제어하는 ‘정서조절(ROE, regulation of emotion)’, 건설적인 활동과 개인의 성과달성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정서활용(UOE, use of emotion)’으로 정서지능의 차원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가 제시한 4가지의 차원(자기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으로 정서지능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2)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정서지능은 인간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Garner & Estep, 2001; Mayer & Salovey, 1995). 학교 장면에서 정서지능과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Betts와 Rotenber(2007)는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인학과 최성열(2009)도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동료나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학교행사 참여도가 높아서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서적, 학업적인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수림, 배성아, 2014; 박현태, 2014; Brackett, Mayer, Jung & Cho Chung, 2012; Warner, 2004).

한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와 김완일(2015)은 정서지능이 높은 병사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유연하게 통제하여 부대 적응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그밖에 여러 연구에서도 병사의 정서지능 수준은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박인조, 양병화, 김성원, 공윤영, 2015).

이처럼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이나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감정들을 재해석하여 긍정적인 평가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서지능이 높은 병사는 군대 내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겪더라도 사건을 더 유연하게 재해석할 수 있고, 군 조직의 심리적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박인조 외, 2015).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관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특성을 지닌다(Goleman, 1998). 이러한 공감적인 태도는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군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3.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또한 Bandura(1986, 1997)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적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포괄적인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도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감, 자기 조절감, 과업 도전감의 3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 및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93). 둘째, 자기조절감은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고 ‘판단’하여 어떤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의미한다(Bandura, 1986, 1993). 셋째, 과업 도전감은 개인이 어떤 업무상황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난이도 수준을 선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Bandura, 1977; Latham & Locke, 1991).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전반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주어진 업무에 대한 수행에서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 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같이 전체로서 측정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기능적 맥락에서 측정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자기 효능감(social self-efficacy)인데(Betz & Hackett, 1982),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 등과 관련된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홍혜영, 1995; Betz & Hackett, 1982).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인 자기주장, 공적 상황에서의 수행, 사회적 신뢰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Betz & Hackett, 1982; Matsushima & Shiomi, 2003), 개인이 개인 간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제를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복무기간 동안 부대원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중요한 개념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효능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Salovey 등(2001)에 따르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평상시에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거나 이끌어 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기분을 보다 쉽게 나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조절의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높다.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정서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성취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Mayer & Salovey, 1995), 이러한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조절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응재, 유태

용, 2012). 이렇게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Chan(2004)은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Moafian과 Ghanizadeh(2009)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자기정서 인식과 대인관계 능력 등은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은 교사가 자기효능감도 높아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였으며(이진화, 이혜원, 유진경, 2010; 조현주, 박경애, 2007), 기업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직업의식 및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응재, 유태용, 2012; Mortan et al., 2014).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정서지능이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이때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 집단 수준으로 확대된 개념을 의미한다(Bandura, 1997; Maddux, 2013). 자기효능감은 집단효능감의 선행변수로서,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집단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권소영, 김완일, 2015; 조강혜, 노형봉, 2013; Calik et al., 2012; Riggs & Knight, 1994). 따라서 군 병사들의 정서지능이 집단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제라 할 수 있다(권소영,

김완일, 2015; 김윤근, 2007; Maddux, 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생활 적응에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두 변인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권재환, 김경희, 2013; 정운정, 임선아, 2013; 정혜연, 이정운, 2009).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조직 적응이나 직장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박득, 김희정, 2017; 주영주, 한상윤, 2015; Yakin & Erdil, 2012).

자기효능감은 군에서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구승신, 2013; Meredith et al., 2011). 병사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Solberg(2005)는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에서 병사들이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Bartone(2006)도 자신감과 강인함 정도가 높은 병사일수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적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윤근(2008)은 우리나라 장병을 대상으로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때 자기효능감은 병사들의 긍정적 자아인지를 촉진하여 군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병사의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만족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조은영, 김완일, 2016) 내재적 입대동기를 높여 군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2016).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인 상관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김완일, 2015; 남연희, 노준, 김영삼, 2018; 서혜석, 2008). 따라서 병사들의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집단응집력

1) 집단응집력의 개념

집단응집력(Group Cohesiveness)이란 ‘구성원들이 집단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려는 힘’으로, 구성원들이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사기와 소속감을 의미한다(Kozub & McDonnell, 2000). 집단응집력은 집단이 서로 단합하거나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는 집단의 경향성이자 집단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집단이 존재하려면 어느 정도의 응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집단 활동의 효율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Evans & Dion, 2012). 집단응집력은 집단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실제로 산업분야와 스포츠, 그리고 군대 관련 영역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져왔다(Dion, 2000; Shields, Gardner, Bredmeier, & Bostro, 1997; Siebold, 2007).

집단응집력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으나, 많은 학자들은 ‘집단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정도’라는 정의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집단응집력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 Festinger 등(1950)은 ‘구성원들을 집단 내부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모든 힘’이라고 집단응집력을 정의하고, 이러한 힘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집단이 만족시켜 주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Lott와 Lott(1965)는 ‘조직 구성원의 상호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조직의 속성’으로 집단응집력을 정의하였으며, 구성원들의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이 유사할수록 상호작용이 많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Cartwright와 Zander(1968)는 집단응집력이란 ‘집단원들이 그들의 집단에 남으려는 욕망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집단의 혜택, 매력에 기초를 둔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 집단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 타 집단과의 비교 등 네 가지 요소가 응집력을 결정한다고 하였다(구희곤, 임수원, 2011에서 재인용). 요컨대 집단응집력이란 집단 내의 개개인들이 집단에 머물러 있으려는 힘, 또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 혹은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응집력은 과업응집력(task cohesiveness)과 사회응집력(social cohesiveness)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Brawley et al., 1993; Carless & De Paola, 2000; Kirke, 2010). 과업응집력은 특정 목표를 향한 공통의 몰입과 성취를 의미하며, 팀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응집력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고, 이는 팀의 ‘유지’를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한다(Brawley et al., 1993). 군 조직은 일반 사회 조직과 달리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생활 및 집단규범을 강조한다(신웅섭, 1998). 따라서 군 전투력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부대원간의 결속력과 응집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과업응집력과 사회응집력 모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군에서는 집단응집력을 ‘단결’이라고 표현한다. 단결은 ‘전 부대원이 지휘관과 뜻을 같이하여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부대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할 수 있는 조직의 힘’이라고 정의된다(김인국, 2017). 부대원들이 자신보다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정신으로서는 전우애라고 할 수 있고 부대차원으로 확장될 때는 응집력이 될 수 있다(국방부, 1997). 국방부는 2012년부터 응집력의 구성요인으로 전우애, 애대심, 상하 간 신뢰를 적용하여 각 부대의 정신전력지수를 측정하고 있다(서진욱, 김문성, 2016).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복무기간 동안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군 조직 내에 남아있고자 하는 마음이 병사들의 군 생활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라 보았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결속력’을 중심으로 집단응집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의 관계

산업분야에서 수행된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Rozell과 Scroggins(2010)는 정서지능이 직장 내 집단의 응집력, 직업수행, 직업만족도, 역할대립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erniss와 Adler(2000)는 정서지능이 팀워크,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상사나 구성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더 강한 결속 및 응집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ati et al., 2003). 국내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정서지능 중 특히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조직의 응집력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윤주, 이해주,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팀원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팀 응집력과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성기, 이동명, 2017).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의 관계는 팀 스포츠 분야에서도 활발히 연구되었다. Harris(2001)는 미국 대학 스포츠 선수들의 정서지능 유능감과 팀 분위기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정서지능이 높은 선수일수록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응집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정서를 잘 활용하고 협조적일수록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응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ley et al., 2013). 국내 연구에서도 팀 스포츠 선수들의 정서조절 능력

은 응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의 팀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만식, 유정인, 2011; 한혜원, 박종화, 2017).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로 미루어볼 때 병사들의 정서지능은 이들의 집단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집단응집력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단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는 경향성이자 집단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서(Evans & Dion, 2012), 집단응집력이 높으면 집단에 대해 강하게 몰입하게 되어 자긍심이 커지고, 구성원과 함께하는 직무의 만족감과 직무성과 역시 높아진다(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송영우, 2016). 이때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는데, 부대원과 상호작용이 많고 유대감이 깊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 더 많이 만족하고 몰입하는 병사일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김완일, 2015; 엄덕희, 2012).

구승신(2004)은 군 복무 병사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서적 환경’이 병사들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생활환경이라 하였는데, 이때 이러한 정서적 환경에는 군 조직의 응집성과 신뢰적 분위기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민화(1998)는 군 생활 적응력 향상요인에 조직의 분위기와 구성원 간 상호작용 수준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와 집단응집성, 군 생활 적응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군대 내에서 스포츠 참여를 통해 동료병사들과의 응집성이 강하게 형성될 때 군 생활 적응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희곤, 임수원, 2011). 따라서 병사들 사이에 응집력이 형성되는 경우 군 생활 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5.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관계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가치 및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Bandura, 1993), 이는 집단 내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Bandura, 1997; Latham & Locke, 1991), 이러한 경향성은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의 수행에 도움을 주어 소속집단이 성공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때 구성원들은 집단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데(홍계훈, 김문주, 2017), 그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잦은 접촉과 친밀한 관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집단의 응집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의 수행능력은 집단의 수행 및 성공경험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집단의 성공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조직에 소속되었을 경우 같은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조직에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Rigotti, Schync & Mohr, 2008; Schync & Collani, 2002).

또한 자기효능감의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믿음’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Luthans & Youssef, 2004) 집단 내 구성원들을 심리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 및 협동심과 관계가 있으며(Betz & Hackett, 1982; Matsushima & Shiomi, 2003),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집단 내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hung & Elias, 1996; Norlander et al., 2002). 이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집단 안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계형성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집단 내에서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집단 내의 응집력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장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관계적 응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홍계훈, 김문주, 2017),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높은 선수일수록 팀 응집력을 더욱 잘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최영옥, 이용국, 정윤희, 2005). 해병대 소대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대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응집력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허제은, 임계환, 손헌일, 2016).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집단효능감이 응집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는데(여운석, 2014; 최진, 이홍식, 2006; Lent et al., 2006; Spink, 1990), 집단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 집단 수준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은 집단효능감을 예측하는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다(권소영, 김완일, 2015; 조강혜, 노형봉, 2013; Bandura, 1997; Riggs & Knight, 1994). 따라서 자기효능감 역시 병사들의 집단응집력에 선행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사의 자기효능감이 집단응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Ⅲ.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각각 매개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확인해보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고, 그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및 군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정서지능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집단응집력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5. 정서지능은 집단응집력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6. 자기효능감은 집단응집력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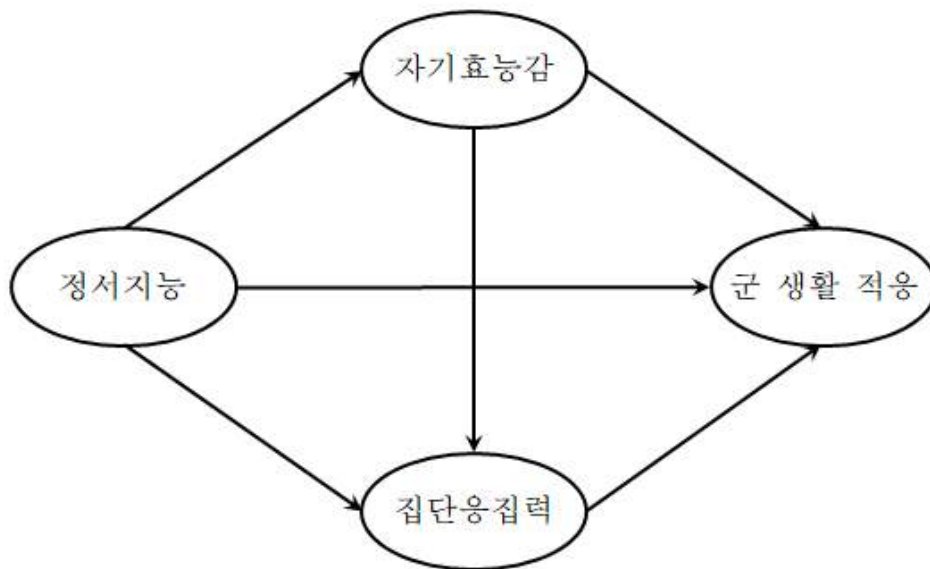
가설 2-1.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집단응집력이 매개하는가?

가설 3-1.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집단응집력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1】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가설 4-1.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으며(IRB 승인번호: SSWUIRB 2018-033),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연구허가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과 군부대의 특성 상 설문조사 내용의 민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대의 보안 및 기밀누설금지 규정에 따라 연구의 개요와 목적, 설문지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문을 통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연구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보안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 부대의 설문조사 지원을 승인 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 3.1을 통하여 최소 사례수를 구하는 식에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420의 값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10-20%의 결측률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80명을 표본 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10월 22일 강원도 I군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 부대를 방문하여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일반 병사 480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군부대의 특성 상 단체로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문지 배부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응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병사들에 한해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가자의 비밀 보장, 중도 철회 및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설문이 종료된 이후에는 700원 상당의 답례품을 병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최종

적으로, 문항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작위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45부를 제외한 총 43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Mayer와 Salovey(1990)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개념을 토대로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한지현과 유태용(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정서이해, 타인정서이해,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별로 네 문항씩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나현과 김종운(2014)의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정서이해 .92, 타인정서이해 .89, 정서활용 .86, 정서조절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자기정서 이해 .86, 타인정서이해 .81, 정서조절 .83, 정서활용 .83으로 나타났다.

<표 1> 정서지능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자기정서이해	4	1, 2, 3, 4	.86
타인정서이해	4	5, 6, 7, 8	.81
정서조절	4	9, 10, 11, 12	.83
정서활용	4	13, 14, 15, 16	.83
전체	16	1~16	.87

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Shere 등(1982)이 제작하고 홍혜영(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17문항, 6문항씩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소영과 김완일(2015)의 연구에서 측정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85, 사회적 자기효능감 .79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91, 사회적 자기효능감 .73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일반적 자기효능감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91
사회적 자기효능감	6	18*, 19, 20*, 21, 22*, 23	.73
전체	23	1~23	.91

*은 역채점 문항

3) 집단응집력 척도

집단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해 Salo와 Siebold(2008)가 제작한 동료집단 응집력 척도(Peer Group Cohesion Scale)를 임정인 등(2016)이 한국군 현실에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동료집단 내 병사들의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우리 부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의 부대에 소속되어 있고 싶다’, ‘우리 부대는 공통의 목표를 강조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정인 등(201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8으로 나타났다.

4) 군 생활 적응 척도

군 생활 적응 수준의 측정을 위하여 김옥란과 김완일(2014)이 개발한 군 생활 적응 척도(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

요인은 군 생활 가치, 애인관계, 심신건강, 업무능력, 동료관계, 선임관계이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소영, 김완일, 김호준(2017)의 연구에서 측정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군 생활 가치 .89, 애인관계 .87, 심신건강 .86, 업무능력 .77, 선임관계 .80, 동료관계 .86이었으며, 4주 후의 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군 생활 가치 .87, 애인관계.83, 심신건강 .80, 업무능력 .75, 선임관계 .71, 동료관계 .85로 나타났다.

<표 3> 군 생활 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군 생활 가치	7	1, 11, 12*, 17*, 19, 27, 30	.87
애인관계	5	3*, 6, 10, 20*, 23*	.83
심신건강	7	2*, 14*, 21*, 22*, 25*, 26*, 32*	.80
업무능력	5	5, 7, 13, 18*, 31*	.75
선임관계	4	4*, 9, 15, 29	.71
동료관계	4	8, 16*, 24, 28	.85
전체	32	1~32	.91

*은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및 순차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20세 이하는 18명(4.1%), 21세는 164명(37.7%), 22세는 167명(38.4%), 23세는 53명(12.2%), 24세 이상은 33명(7.6%)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1세(SD=.97)였다. 연구대상자의 계급은 일병이 150명(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병 123명(28.3%), 이병 105명(24.1%), 병장 57명(13.1%) 순이었다. 병과는 전투병과가 331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병과 56명(12.9%), 행정병과 37명(8.5%) 순이었으며 기타는 11명(2.5%)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 320명(73.6%), 고졸 84명(19.3%), 대학 졸업 22명(5.1%), 대학원 재학 3명(0.7%) 순이었으며, 기타는 6명(1.4%)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282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독교 88명(20.2%), 불교 35명(8.0%), 천주교 30명(6.9%) 순이었다.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매우 건강하다’는 119명(27.4%), ‘건강하다’는 174명(40.0%)이었으며, ‘보통이다’ 122명(26.0%), 그리고 ‘건강하지 않다’는 16명(4.1%), ‘매우 건강하지 않다’는 2명(0.5%)이었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85명(19.5%)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50명(80.5%)은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35)

		N	%
나이	20세 이하	18	4.1
	21세	164	37.7
	22세	167	38.4
	23세	53	12.2
	24세 이상	33	7.6
계급	병장	57	13.1
	상병	123	28.3
	일병	150	34.5
	이병	105	24.1
병과	전투병과	331	76.1
	기술병과	56	12.9
	행정병과	37	8.5
	기타	11	2.5
학력	고졸	84	19.3
	대학 재학	320	73.6
	대학 졸업	22	5.1
	대학원 재학	3	0.7
	기타	6	1.4
종교	기독교	88	20.2
	천주교	30	6.9
	불교	35	8.0
	무교	282	64.8
	기타	0	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19	27.4
	건강하다	174	40.0
	보통이다	122	28.0
	건강하지 않다	18	4.1
	매우 건강하지 않다	2	0.5
이성친구(애인)	있음	85	19.5
유무	없음	350	80.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나이, 계급, 병과, 학력,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교와 이성친구 유무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종교는 ‘있음’ 과 ‘없음’의 종교의 유무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군 생활 적응 수준은 계급, 병과, 학력, 종교, 이성친구 유무의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이와 건강상태에서는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나이의 사후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세 이하 집단은 23세 집단보다 군 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_{(4, 430)}=2.60, p<.05$). 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하다’ 와 ‘건강하다’ 라고 응답한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 와 ‘매우 건강하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F_{(4, 430)}=23.42, p<.001$).

<표 5>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 (N=435)

		N(%)	군 생활 적응	
			M(SD)	t/F
나이	20세 이하(a)	18(4.1)	3.90(.51)	2.60* (a>d)
	21세(b)	164(37.7)	3.50(.56)	
	22세(c)	167(38.4)	3.51(.52)	
	23세(d)	53(12.2)	3.44(.58)	
	24세 이상(e)	33(7.6)	3.53(.58)	
계급	병장	57(13.1)	3.65(.50)	1.47
	상병	123(28.3)	3.48(.51)	
	일병	150(34.5)	3.51(.56)	
	이병	105(24.1)	3.49(.61)	
병과	전투병과	331(76.1)	3.52(.55)	.83
	기술병과	56(12.9)	3.55(.58)	
	행정병과	37(8.5)	3.50(.51)	
	기타	11(2.5)	3.27(.55)	
학력	고졸	84(19.3)	3.42(.54)	1.15
	대학 재학	320(73.6)	3.54(.54)	
	대학 졸업	22(5.1)	3.43(.74)	
	대학원 재학	3(0.7)	3.82(.38)	
	기타	6(1.4)	3.42(.59)	
종교 유무	있음	153(35.1)	3.52(.56)	.75
	없음	282(64.8)	3.51(.55)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a)	119(27.4)	3.82(.52)	23.42*** (a,b>c>d,e)
	건강하다(b)	174(40.0)	3.52(.48)	
	보통이다(c)	122(28.0)	3.30(.52)	
	건강하지 않다(d)	18(4.1)	3.01(.50)	
	매우 건강하지 않다(e)	2(0.5)	2.34(.04)	
이성친구(애인) 유무	있음	85(19.5)	3.44(.57)	-1.34
	없음	350(80.5)	3.53(.55)	

* $p < .05$, *** $p < .001$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2, p<.001$).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모두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3-.52, p<.001$), 특히 정서지능은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업무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60, p<.001$).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활용 역시 업무능력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58, p<.001$). 한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인식은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심신건강, 선임관계, 애인관계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1, p<.001$). 또한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2-.71, p<.001$), 특히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업무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71, p<.001$).

셋째, 집단응집력은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6, p<.001$). 또한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65, p<.001$).

넷째,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70, p<.001$).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모두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4-.72, p<.001$),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활용은 자기효능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72, p<.001$).

다섯째, 정서지능은 집단응집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

$p < .001$).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모두 집단응집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6-.39$, $p < .001$).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집단응집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0$, $p < .001$).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모두 집단응집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44-.45$, $p < .001$).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

(N=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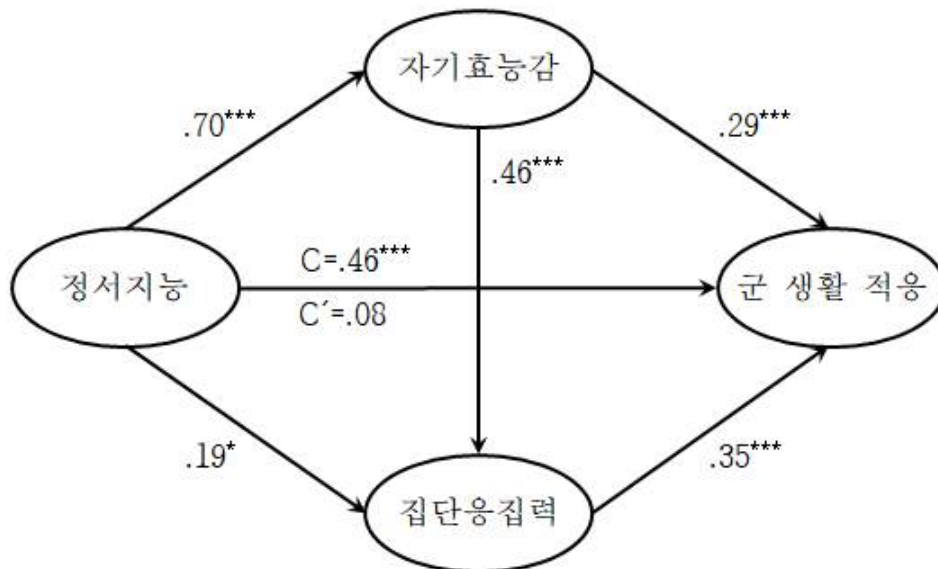
변인	1	1a	1b	1c	1d	2	2a	2b	3	4	4a	4b	4c	4d	4e	4f
1. 정서지능	1															
a. 자기정서인식	.73***	1														
b. 타인정서인식	.65***	.40***	1													
c. 정서조절	.71***	.36***	.21***	1												
d. 정서활용	.76***	.41***	.32***	.40***	1											
2. 자기효능감	.69***	.44***	.34***	.45***	.72***	1										
a. 일반적 자기효능감	.66***	.41***	.30***	.44***	.72***	.96***	1									
b. 사회적 자기효능감	.51***	.37***	.30***	.32***	.45***	.73***	.51***	1								
3. 집단응집력	.43***	.28***	.31***	.26***	.39***	.50***	.44***	.45***	1							
4. 군 생활 적응	.52***	.35***	.23***	.41***	.48***	.61***	.57***	.50***	.66***	1						
a. 군 생활 가치	.43***	.24***	.27***	.21***	.48***	.50***	.47***	.39***	.61***	.78***	1					
b. 애인관계	.16**	.11*	-.03	.24***	.12*	.22***	.21***	.17***	.21***	.55***	.15**	1				
c. 심신건강	.37***	.22***	.08	.42***	.30***	.43***	.40***	.35***	.50***	.82***	.53***	.41***	1			
d. 업무능력	.60***	.46***	.25***	.40***	.58***	.71***	.68***	.51***	.39***	.67***	.47***	.26**	.42***	1		
e. 선임관계	.17***	.11*	.03	.21***	.12*	.24***	.19***	.26***	.39***	.60***	.36***	.27***	.43***	.22***	1	
f. 동료관계	.49***	.38***	.43***	.21***	.39***	.46***	.40***	.46***	.65***	.65***	.55***	.13**	.39***	.52***	.28***	1
평균	3.73	4.16	3.76	3.43	3.56	3.56	3.57	3.53	3.47	3.51	3.41	3.45	3.47	3.68	3.44	3.71
표준편차	.51	.60	.68	.78	.77	.54	.59	.66	.69	.55	.83	.90	.78	.69	.85	.69
왜도	-.13	-.40	-.59	-.15	-.33	-.44	-.42	-.37	-.24	-.17	-.48	-.22	-.41	-.43	-.25	-.50
첨도	.99	.37	1.43	-.09	.11	1.16	1.08	.50	.14	.26	.08	-.25	-.03	.48	-.20	1.11

* $p < .05$, ** $p < .01$, *** $p < .001$

3. 매개효과 검증

1)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검증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다중매개모델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결과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나이와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나이와 건강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의 각 변인간의 이중매개모델 및 산출된 경로계수들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p < .05$, *** $p < .001$, c: 전체효과, c': 직접효과

<그림 2>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모형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지능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 431)}=71.72,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46, t=9.807, p<.001$).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서지능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3, 431)}=137.00, p<.001$). 즉,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서지능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70, t=17.241, p<.001$).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집단응집력에 대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4, 430)}=43.13, p<.001$). 집단응집력에 대한 정서지능($B=.19, t=2.440, p<.05$)과 자기효능감($B=.46, t=6.308, p<.001$)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집단응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5, 429)}=115.38, p<.001$). 자세히 살펴보면,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B=.29, t=6.298, p<.001$)과 집단응집력($B=.35, t=11.775,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정서지능($B=.08, t=1.543, p=.124$)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지만, 정서지능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투입하였을 경우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 동시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46, p<.001; B=.08, p=.124$). 지금까지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표 7>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7>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i>SE</i>	<i>t</i>
군 생활 적응	정서지능	.46	.05	9.807***
	나이	-.06	.02	-2.452*
	건강상태	-.16	.03	-5.931***
	F(3, 431)=71.72, <i>p</i> =.000, R ² =.33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70	.04	17.241***
	나이	-.00	.02	-.012
	건강상태	-.07	.02	-2.82**
	F(3, 431)=137.00, <i>p</i> =.000, R ² =.49			
집단응집력	정서지능	.19	.08	2.440*
	자기효능감	.46	.07	6.308***
	나이	-.09	.03	-3.194*
	건강상태	-.09	.04	-2.562*
F(4, 430)=43.13, <i>p</i> =.000, R ² =.29				
군 생활 적응	정서지능	.08	.05	1.543
	자기효능감	.29	.05	6.298***
	집단응집력	.35	.03	11.775***
	나이	-.02	.02	-1.225
	건강상태	-.10	.02	-4.476***
F(5, 429)=115.38, <i>p</i> =.000, R ² =.57				

* *p* <.05, ** *p* <.01, *** *p* <.001

2)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이중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표본 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와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추출회수만큼 얻어낸 후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CI, Bias-corrected)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Shrout & Bloger, 2002).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수준에서 부트스트랩을 5,000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군 생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1$, 95% Bias-corrected CI=.13-.29).

다음으로 정서지능이 집단응집력을 거쳐 군 생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7$, 95% Bias-corrected CI=.01-.14).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차례로 거쳐 군 생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11$, 95% Bias-corrected CI=.07-.16).

이를 종합하면,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각각 매개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병사들의 정서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군에서의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병사들의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이들

의 집단응집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매개효과 Bootstrap 분석 결과

매개경로	Bootstrap estimate		95% 신뢰구간	
	<i>B</i>	<i>SE</i>	LLCI	ULCI
정서지능 → 자기효능감 → 군 생활 적응	.21	.04	.13	.29
정서지능 → 집단응집력 → 군 생활 적응	.07	.03	.01	.14
정서지능 → 자기효능감 → 집단응집력 → 군 생활 적응	.11	.02	.07	.16

주. bootstrap은 5,000회 실시하였음.

Ⅵ.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군 복무 중인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고,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나이에 대해 살펴보면, 20세 이하 집단은 23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세 이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군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양명호 외(2017)의 연구 및 나이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들(서혜석, 김정은, 2009;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2009)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 ‘매우 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군 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더 좋다고 지각할수록 군에서의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구승신, 2004; 엄덕희, 2012; 유연웅,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보다 건강상태에 따른 군 생활 적응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병사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며 군대 내에서 이러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군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순영, 2003).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계급, 병과, 학력, 종교, 이성친구 유무는 군 생활 적응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계급과 학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군 생활 적응과 높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구승신, 2004; 박영주, 정원철, 2006; 서혜석, 김정은, 2010; 엄덕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논의한 나이를 비롯하여 일부 변인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구마다 표집이 다르고 측정도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부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끼리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병사들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군 생활 적응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병사일수록 군에서의 적응력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박인조 외, 2015; 이현주, 김완일, 2015). 또한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먼저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의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응재, 유태용, 2012; 이진화 외, 2010; 조현주, 박경애, 2007; Mortan et al., 2014). 또한 정서지능과 집단응집력의 관계의 경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산업 및 스포츠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팀 응집력이 높았다고 보고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서성기, 이동명, 2017; 이윤주, 이해주, 2016; 한혜원, 박

종화, 2017; Bradley et al., 2013; Rozell & Scroggins, 2010). 다음으로 자기 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군 생활 적응과도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관계는 자기효능감이 소속 집단 내의 응집력과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지영 외, 2005; 허제은 외, 2016; 홍계훈, 김문주, 2017). 또한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병사일수록 군에 대한 만족감과 적응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권소영, 김완일, 2015; 남연희 외, 2018; 서혜석, 2008; Solberg, 2005). 집단응집력과 군 생활 적응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부대원과 상호작용이 많고 유대감이 깊은 병사일수록 군 생활 적응도가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구승신, 2004; 구희곤, 임수원, 2011; 엄덕희, 2012; 임정인 외, 2016).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의 매개효과 및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이 집단응집력에 영향을 미쳐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병사일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높아지고, 동료 병사들과의 유대감 및 응집력이 향상되어 군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모형은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에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춘경, 한은수, 조민규, 2013; 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또한 정서지능이 집단응집력을 매개하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서지능이 팀 응집성을 거쳐 집단 내 만족감 및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만식, 유정인, 2011). 한편,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통해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고,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정도의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은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예측변인이 아닌 매개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서영석, 2010). 따라서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정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 직접 개입하는 것 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높여주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 애착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향후 군 상담 장면에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먼저 군부대에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병사를 상담하는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높여줌으로써 군 생활 적응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개인상담보다는 집단상담이 보다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집단 내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동료병사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성취감을 느낀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동료병사들

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집단 구성원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늘어난다면 집단 내 소속감과 응집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군 복무 부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신교육시간에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두 가지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군 복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인으로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인 차원의 변인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군 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군 생활 적응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병사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애착과 같은 개인내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고기숙, 정미경, 2011; 김옥란, 김완일, 2016; 남연희 외, 2018; 유종훈, 김완일, 2015). 하지만 군대는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권소영, 김완일, 2015; 김인국, 2017)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집단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개인내적인 변인인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집단에 대한 변인인 집단응집력을 함께 고려하여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완전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 및 군 생활 적응의 개별적인 관계성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정서지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경험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집단응집력이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군 복무 부적응 문제를 겪는 병사에게 개입해야 할 변인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군 상담 장면에서 있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에게 병사들의 실질적인 군 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로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밝히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일부 육군부대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군에서 복무중인 병사 전체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병사들의 계급을 동등비율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일반화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병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병, 이병 순이었으며, 병장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병사의 계급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윤근, 2007; 엄덕희, 2012; 최혜란, 박숙희, 2009).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계급별로 연구 참여자의 비율을 동등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육, 해, 공군 각 군별로 여러 지역의 부대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 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에는 애인관계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김옥란, 김완일, 2014), 본 연구에서는 80% 이상의 병사들이 현재 이성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애인관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에 응답할 때 ‘애인이 있다고 가정’ 하고 응답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실제 애인유무에 따라 군 생활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친구의 유무에 관계없이 군 생활 적응 수준을 유의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응집력 척도는 Salo와 Siebold(2008)가 제작한 동료집단 응집력 척도(Peer Group Cohesion Scale)를 임정인 등(2016)이 한국군 현실에 맞게 번안한 것인데, 이는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집단응집력을 측정할 때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척도들은 대부분 스포츠 팀이나 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Carless & De Paola, 2000; Carron, Brawley & Widmeyer, 1998). 국내에서 개발된 집단응집력 척도 역시 스포츠 팀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이한규, 김병현, 1995),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집단응집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군대 환경을 잘 반영하여 병사들의 집단응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집단응집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전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

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병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도 군 조직의 특성 상 병사들이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병사들은 군대 내에서 부적응 병사로 낙인찍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이은주, 유은광, 2018), 이에 따라 군 생활 적응 수준을 측정함에 있어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설문에 응답하였을 수 있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부자, 최연실 (2017).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5, 137-153.
- 강영순, 임화순 (2008). 상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수행 간 부하 특성 및 정서노동의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20, 123-150.
- 강혜원 (2017). 팀 비서의 감성지능(EQ)이 팀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기숙, 정미경 (2011). 현역 병사들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불안, 우울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294-306.
- 곽윤정 (2010).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4), 263-281.
- 구남웅, 최태산 (2009). 군 상담: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부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0(3), 1757-1768.
-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승신 (2013).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군상담의 현황 연구.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1), 1-20.
- 구희곤, 임수원 (2011). 군 병사의 스포츠참여와 집단응집성, 군 생활 적응성, 조직효과성 간의 인과모형. 한국체육학회지, 50(5), 295-307.
- 국방부 (1997). 정신전력 지도지침서. 서울: 국방부.
- 권소영, 김완일 (2013). 대상관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829-3848.

- 권소영, 김완일 (2015). 군 장병의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393-414.
- 권소영, 김완일, 김호준 (2017). 군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435-456.
- 권재환, 김경희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35, 31-57.
- 김길환, 김주현, 박동건 (2017). 집단의 성공 경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해군 간부들의 집단효능감과 집단응집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527-556.
- 김영옥 (2002).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전략. 유아의 사회적능력 함양. 한국 어린이 육영회, 54-91.
- 김옥란,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 김옥란, 김완일 (2015). 군 병사의 자기복잡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59-181.
- 김옥란, 김완일 (2016). 군 병사의 부모애착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4), 243-271.
- 김응재, 유태용 (2012). 정서지능과 적응수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239-263.
- 김유덕, 김완일 (2013). 군 병사의 내현적 자기애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2), 211-238.
- 김윤근 (2007). 병사들의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국 (2017). 군 정신교육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정신전력연

- 구, 48, 51-103.
- 김지영, 최영옥, 이용국, 정윤희 (2005). 농구경기에서 자기효능감이 팀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스포츠리서치, 16(5), 323-330.
- 김정은 (2016). 병사의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내재적 입대 동기의 매개 및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 41-56.
- 김진두 (2018). 항공사 객실승무원 조직에서 구성원의 정서지능이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 83-93.
- 김춘경, 한은수, 조민규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구조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1), 209-229.
- 김혜성, 김완일 (2016). 공군 병사의 자기분화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8), 241-263.
- 남연희, 노준, 김영삼 (2018). 육군병사들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단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11(1), 157-179.
- 노수림,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정서 지능, 학습몰입,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4(2), 343-362.
- 류진아 (2018). 병사가 지각하는 군 생활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 CQR-M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10, 59-74.
- 문용린 (2001). 학교에서의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 문용린, 임태조, 곽윤정, 이현웅 (2007). 한국 조직 내에서의 정서지능과 성인의 업무 수행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 21-34.
- 문은식 (2005).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6(1), 147-162.
- 박 득, 김희정 (2017). 감성지능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의 영향 연구-자기

- 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6), 353-365.
- 박미영, 김완일 (2014). 병사의 긍정적 사고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127-2141.
- 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주, 정원철 (2006). 병사의 군 부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3-93.
- 박인조, 양병화, 김성원, 공윤영 (2015).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경력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435-459.
- 박 일, 고영건 (2012).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105-124.
- 박현철 (2001). 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태 (20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3), 1576-1583.
- 서성기, 이동명 (2017). 팀 구성원의 정서지능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5(4), 49-69.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진욱, 김문성 (2016). 군 리더의 감성지능이 군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9(4), 167-193.
- 서혜석 (2008). 신세대 병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5), 109-313.
- 서혜석, 김정은 (2009). 육·해군병사의 진로발달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6), 25-43.
- 서혜석, 김정은 (2010). 병사의 무망감,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

- 연구, 12(1), 123-144.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박학사.
- 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 7(1), 63-95.
- 신응섭 (1998). 군 복무 부적응자의 심리적 특성 분석.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54, 1-19.
- 신태수 (1981). 군대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 생활에의 적응과의 연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왕정희 (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안현의, 손난희, 이문희, 서은경 (2007). 상담일반: 군복무 부적응 실태 및 인권침해 경험과의 관련성. 상담학연구, 8(2), 425-435.
- 양명호, 김정학, 강영신 (2017). 한국군 장병의 문화적 역량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학논집, 73(1), 121-145.
- 엄덕희 (2012).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 육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 11, 31-61.
- 여운석 (2014). 핸드볼 선수의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팀 응집력, 집단효능감의 관계. 스포츠과학논문집, 26, 125-141.
- 오현철 (2012).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웅 (2012).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 5(2), 5-30.
- 유종훈, 김완일 (2015). 상시 비전캠프 제도가 복무 부적응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군상담학회지, 4, 15-30.
- 유진 (2013).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정서지능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 24(4), 75-92.
- 육군본부 (2007). 자살사고 예방 추진지침. 대전: 육군본부.
- 윤소정, 주자현, 이은영 (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체계와 학급 응
집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열린교육학회, 21(2), 185-207.
- 이나현, 김종운 (2014).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과 정서지능이 직무소진
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3(2), 103-120.
- 이대식, 서혜석, 변상해 (2016). 육군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군
사회복지학, 9(1), 5-31.
- 이은우 (2005).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유은광 (2018).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
학적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4), 329-341.
- 이윤주, 이해주 (2016). 호텔직원의 감성지능이 회복탄력성과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조직정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10),
171-187.
- 이윤희 (1963). 군대 생활에의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학, 최성열 (2009).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 적
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18(4), 47-56.
- 이인학, 박지은, 김도진, 최성열 (201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학습동기, 자
기효능감,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 아동교육, 20(3),
21-31.
- 이주리 (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 이주희, 김정규 (2015). 자기존중감 및 통제소재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299-315.
- 이지우, 장영혜, 강인호 (2016). 감정노동, 조직몰입, 삶의 만족의 관계. 관광연구, 31(3), 277-295.
- 이진화, 이해원, 유진경 (2010).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정서노동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5(2), 117-136.
- 이한규, 김병현 (1995). 집단 종목 팀의 집단응집력 검사개발. 체육과학 논총, 6(1), 15-26.
- 이현숙 (2006).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김완일 (2015). 군 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군상담학회지, 4(1), 31-52.
- 임수연, 권동택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의사소통과 학급집단 응집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초등교육학연구, 19(1), 67-90.
- 임정인, 이수란, 신재현, 박인조, 송영우 (2016). 군 장병의 역할구별, 응집력, 생활관 만족 및 지각된 분대수행의 관계: 생활관구조와 분대장 과업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9(1), 1-25.
- 장지훈, 김원경, 서재복, 최만식 (2014). 스포츠분야에서 정서지능과 코칭 효과와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12(2), 45-59.
- 정덕희 (2009). 유아의 조망수용, 마음이론과 정서지능의 관련성. 열린유아교육연구, 14(3), 359-378.
- 정민화 (1998). 신세대 현역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력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봉기, 김완일 (2016). 병사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9), 453-471.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윤정, 임선아 (2013).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27(4), 853-873.
- 정원철, 박영주 (2011). 병사의 군부적응 및 적응력향상 관련 국내 연구동향의 개관. 청소년학연구, 18(1), 49-71.
- 조강혜, 노형봉 (2013). 자아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집단효능감의 매개변수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20(4), 175-188.
- 조순영 (2003). 병사들의 건강증진 행위, 정신건강,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2), 164-171.
- 조은영, 김완일 (2016). 병사의 자기효능감과 군 생활만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433-452.
- 조추용 (2015). 군 장병들의 대인관계와 조직헌신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인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 8(2), 97-125.
- 조현주, 박경애 (2007). 교사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251-270.
- 주영주, 한상윤 (2015). 대졸 청년층의 대학생활 만족도 및 첫 직장만족도 관련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13(1), 193-212.
- 지성호, 공란란, 강영순 (2016). 사회지능과 직무수행의 관계에서 직무열의 및 주도적 행동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3(4), 55-80.
- 최만식, 유정인 (2011). 팀 스포츠 선수들의 정서지능, 팀 응집력, 선수만족의 인과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3(2), 13-22.
- 최명선, 구남웅. (2008).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공감능력, 친밀도와 부

- 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27-1241.
- 최진, 이홍식 (2006). 고교축구팀의 집단 응집력과 집단효능감 및 대회 성적의 구조적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3), 33-46.
- 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 한지현, 유태용 (2005). 상사의 정서지능이 부하의 태도와 상사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1), 177-199.
- 한혜원, 박종화 (2017). 대학 팀 운동선수의 감성지능이 집단응집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5(1), 79-85.
- 허원무 (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한국비즈니스리뷰, 6(3), 43-59.
- 허제은, 임계환, 손헌일 (2016). 코칭 및 지시적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응집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해병대 소대원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6(3), 69-75.
-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2009). 군인들의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대한정신간호학회지, 18(3), 305-312.
- 홍계훈, 김문주 (2017). 팀 내에서 느끼는 긍정감과 자기효능감이 관계적응성과 다양성 태도, 역할 외 행동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 대한경영학회지, 30(5), 813-833.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hronson, A., & Cameron, J. E. (2007).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group cohesion in a military sample. *Military Psychology*, 19(1), 9-2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tone, P. T. (2006). Resilience under military operational stress: Can leaders influence hardiness?. *Military psychology*, 18(1), S131-S148.
- Betts, L. R., & Rotenber, K. J.(2007). Trustworthiness, friendship and self-control: Factors that contribute to you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491-508.
- Betz, N. E., & Hackett, G. (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279-289.
- Brackett, Mayer, & Warner (2004).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relation to everyday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387-1402.
- Bradley, B. H., Baur, J. E., Banford, C. G., & Postlethwaite, B. E. (2013). Team Players and Collective Performance: How Agreeableness Affects Team Performance Over Time, *Small Group Research*, 44(6), 680-711.
- Brawley, L. R., Carron, A. V., & Widmeyer, W. N. (1993). The influence of the group and its cohesiveness on perceptions of group goal-related variabl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3), 245-260.
- Calik, T., Sezgin, F., Kavgaci, H., & Cagatay Kilinc, A. (2012). Examination

- of Relationships between Instructional Leadership of School Principals and Self-Efficacy of Teachers and Collective Teacher Efficacy.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4), 2498-2504.
- Carless, S. A., & De Paola, C. (2000). The measurement of cohesion in work teams. *Small group research*, 31(1), 71-88.
- Carron, A. V., Brawley, L. R. & Widmeyer, W. N. (1998). The measurement of cohesiveness in sport groups. *Advances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measurement*, 23(7), 213-226.
- Cartwright, D., & Zander, A. (1968). *Group Dynamics: Research & Theory*. New York: Harper.
- Casey-Campbell, M., & Martens, M. L. (2009). Sticking it all together: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group cohesion-performanc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1(2), 223-246.
- Chan, D. W. (2004).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among chinese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Hongko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8), 1781-1795.
- Cherniss, C., & Adler, M. (2000). *Promot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organizations: Make training in emotional intelligence effectiv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 Chung, H., & Elias, M. (1996). Patterns of adolescent involvement in problem behaviors: Relationship to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life ev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6), 771-784.
- Crain, W. (2015). *Theories of Develop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Concepts and Applications*. Psychology Press.

- Crowne, K. A. (2013). Cultural exposur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ultural intelligence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13(1), 5-22.
- Dion, K. L. (2000). Group cohesion: From “field of forces“ to multidimensional construct.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1), 7.
- Emmerling, R. J., & Boyatzis, R. E. (2012).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competencies: cross cultural implications: *Cross Cultur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9(1), 4-18.
- Evans, C. R., & Dion, K. L. (2012). Group cohesion and performance: A meta-analysis. *Small Group Research*, 43(6), 690-701.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1950). *Social pressure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a housing project*. New York, NY: Harper & Bros.
- Garner, P. W., & Estep, K. M.(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29-48.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Bantam Books, New York.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s, New York.
- Griffith, J. (2002). Multilevel analysis of cohesion’s relation to stress, well-being, identification, disintegration, and perceived combat readiness. *Military Psychology*, 14(3), 217-239.
- Griffith, J., & Vaitkus, M. (1999). Relating cohesion to stress, strain, disintegration, and performance: An organizing framework. *Military*

- Psychology*, 11(1), 27-55.
- Harris, I. H. (2001).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ompetencies in NCAA Division I athletic directors and the organization climate within their depart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2001).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3000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Judge, T. A., & Bono, J. E. (2011). Relationship of core self evaluations traits-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0-92.
- Jung, H. J., & Cho Chung, H. I.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 Kirke, C. (2010). Military cohesion, culture and social psychology. *Defense & Security Analysis*, 26(2), 143-159.
- Komarraju, M., & Nadler, D. (2013).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hy do implicit beliefs, goals, and effort regulation matte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67-72.
- Kozub, S., & McDonnell, J. (200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in rugby teams. *Journal of Sport Behaviour*, 23(2), 120-129.

- Latham, G. P., & Locke, E. A. (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12-247.
- Lazarus, R. S. (1976). *Patterns of adjustment*(3rd ed.). New York: McGraw Hill.
- Lent, R. W., Schmidt, J., & Schmidt, L. (2006). Collective efficacy beliefs in student work teams: Relation to self-efficacy, cohes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73-84.
- Light Shields, D. L., Gardner, D. E., Light Bredemeier, B. J., & Bostro, A.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behaviors and group cohesion in team spor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1(2), 196-210.
- Lott, A. J., & Lott, B. E. (1965). Group cohesiveness as interpersonal attraction: A review of relationships with antecedent and consequent variables. *Psychological bulletin*, 64(4), 259.
- Lunenburg, F. C. (2011). Self-efficacy in the workplace: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business, and administration*, 14(1), 1-6.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Maddux, J. E. (Ed.). (2013).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Matsushima, R., & Shiomi, K. (2003). Social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stress in adolescenc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4), 323-332.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Mayer, J. D. & Salovey,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 197-208.
- Melita Prati, L., Douglas, C., Ferris, G. R., Ammeter, A. P., & Buckley, M. R. (2003).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team outcom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1(1), 21-40.
- Meredith, L. S., Sherbourne, C. D., Gaillot, S. J., Hansell, L., Ritschard, H. V., Parker, A. M., & Wrenn, G. (2011). Promoting psychological resilience in the US military. *Rand health quarterly*, 1(2).
- Mer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hwah, N. J. : Erlbaum Associates.
- Miller, P. H. (2002).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ition*. New York: Worth.
- Moafian, F., & Ghanizadeh, A.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Iranian EFL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self-efficacy in Language Institutes. *System*, 37(4), 708-718.
- Moon, T. (2010). Emotional intelligence correlates of the four-factor model of cultural intelligen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5(8), 876-898.
- Mortan, R. A., Ripoll, P., Carvalho, C., & Bernal, M. C. (2014).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elf-efficacy. *Revista de Psicología del Trabajo y de las Organizaciones*, 30(3).
- Norlander, T., Bergman, H., & Archer, T. (2002). Relative constancy of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fficacy of a 12-month training program in facilitating coping strategi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0(8), 773-783.
- Parkinson, B., Fischer, A. H., & Manstead, A. S. (2005). *Emotion in social relations*. Cultural, group, and interpersonal processes.
- Peterson, C., Park, N., & Castro, C. A. (2011). Assessment for the US army comprehensive soldier fitness program: The global assessment tool. *American Psychologist*, 66(1), 10-18.
- Piaget, J. (2005).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Routledge.
- Rathus, S. A., & Nevid, J. S. (1995). *Adjustment and growth: The challenge of life*. Orlando, FL: Harcourt Brace.
-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 Riggs, M. L. & Knight, P. A. (1994).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5), 755.
- Rigotti, T., Schyns, B., & Mohr, G. (2008). A short version of the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Structural and construct validity across five countr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238-255.
- Rozell, E. J., & Scroggins, W. A. (2010). How much is too much?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self-managed work team satisfaction and group processes. *Team Performance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6(1/2), 33-49.
- Salo, M., & Siebold, G. L. (2008). Variables impacting peer group cohesion

- in the Finnish conscript service.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36(1), 1-18.
- Salovey, P., Woolery, A., & Mayer, J. D. (2001). Emotional intelligenc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 G. Fletcher & M. S. Clark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Interpersonal processes*. Oxford, England: Blackwell publishers.
- Schyns, B., & Von Collani, G. (2002). A new occupational self-efficacy scale and its relation to personality constructs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2), 219-24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iebold, G. L. (2007). The essence of military group cohesion. *Armed Forces & Society*, 33(2), 286-295.
- Solberg, O. A., Laberg, J. C., Johnsen, B. H., & Eid, J. (2005). Predictors of self-efficacy in a Norwegian battalion prior to deployment in an international operation. *Military Psychology*, 17(4), 299-314.
- Spink, K. S. (1990). Group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of volleyball tea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3), 301-311.
- Stauffer, S. A., Suchman, E. A., Devinney, L. C., Star, S. A., & Williams, R. M. (1949). *The american soldiers: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entacosta, C. J., & Fine, S. E. (2010). Emotion knowledge,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Development, 19*(1), 1-29.
-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s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exploratory Study" ,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 Yakin, M., & Erdil, O. (2012).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and work engagement and th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 survey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8*, 370-378.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among Military Soldiers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oup Cohesion

Won Ye Eu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oup cohe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among military soldiers. For this purpose,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Self Efficacy Scale, Peer Group Cohesion Scal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were administered to 435 army soldiers in Gangwon-do. SPSS 21.0 and SPSS PROCESS macro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ccording to ag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Seconds,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ith major factor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group cohesion,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ir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group cohe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self-efficacy and group cohes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provides theoretical approach to improve soldier's adaptation to military life by identifying variable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ilitary life adjust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Group cohesion, Mediating effect

부 록

- 부 록 1. 설문 동의서
- 부 록 2.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 부 록 3. 정서지능 척도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 부 록 4. 자기효능감 척도 (Self Efficacy Scale)
- 부 록 5. 동료집단 응집력 척도 (Peer Group Cohesion Scale)
- 부 록 6. 군 생활 적응 척도 (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부 록 1. 설문 동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설문지는 군 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응답에는 약 10분~1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설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주어진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오직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결과는 병사들의 군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올바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본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이 있을 경우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참여 도중 중단하시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응답하신 문항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솔직한 응답은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서명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원할 경우, 아래 연구담당자 메일로 연락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 석사과정 원예은 드림
(연구담당자: wye0508@naver.com)
지도교수 : 이 정 윤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위의 내용에 대해 전달받고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부 록 2.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나이는?

- ① 20세 이하 ② 21세 ③ 22세 ④ 23세 ⑤ 24세 이상

2. 귀하의 계급은?

- ① 병장 ② 상병 ③ 일병 ④ 이병

3. 귀하의 병과는?

- ① 전투병과 ② 기술병과 ③ 행정병과 ④ 기타

4. 귀하의 학력은 ?

- ① 고졸 ② 대학 재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기타 ()

5.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6. 귀하의 건강상태는?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7. 귀하의 이성친구(애인) 여부는?

- ① 있음 ② 없음

부 록 3. 정서지능 척도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II. 다음은 자신의 감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항상 내 동료들의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감정을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에 민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항상 빨리 진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노여움을 통제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항상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①	②	③	④	⑤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4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스로 동기부여 시키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항상 내 자신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4. 자기효능감 척도 (Self Efficacy Scale)

Ⅲ. 다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일을 처음에 잘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 볼 시도조차 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대처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쉽게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와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간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첫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사회적(사교적) 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 덕분으로 사귀었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5. 동료집단 응집력 척도 (Peer Group Cohesion Scale)

Ⅳ. 다음은 자신이 속한 부대 및 부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나는 우리 부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대는 단결심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대는 공통의 목표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부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부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대원들은 내가 군 복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정말 좋은 소속감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8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부대원들은 그들이 위험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의 동료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부 록 6. 군 생활 적응 척도 (Military Life Adjustment Scale)

V. 다음은 전반적인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3, 6, 10, 20, 23번은 애인이 없는 경우,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내가 하는 군 생활은 전역 후의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애인과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안절부절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선임들이 자신이 할 일을 후임에게 미룬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속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애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동료들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일부 선임들은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애인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군 생활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군 생활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화가 나면 어떤 식이든지 표현해야 직성이 풀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선임들이 말을 함부로 할 때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6	동료들은 나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군대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배우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군 복무를 잘 수행하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동료가 애인과 헤어졌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애인 걱정 때문에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틀에 짜인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6	고함을 지르거나 무엇인가를 던지고 싶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군 생활이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가 힘들어 할 때 동료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내가 소속한 부대의 선임들은 본받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군 생활 중에 어려운 일들을 잘 수행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요즘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